

## 대통령과 조선 왕

김정환

최근 왕초를 주제로 쓴 두 글을 느닷없이, 두서없이,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뒤섞어 보니,

1971년 40대 기수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은 분명 선거에서 장기집권 군사독재자 박정희보다 많은 표를 얻었으나 개표 부정으로 낙마했다. 당시 그가 장충단 공원 연설 때 모은 군중수는 전설적이다. 그 후 1997년 마침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장장 26년 동안 그는 백주대낮의 피살 위기를 수차례 넘겼고 군사재판으로 사형선고 및 국외추방 조처를 당했고 대통령 후보로 두 번 더 실패했으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만한 민주화운동 영력과 정치적 경륜, 그리고 국제적 위상과 카리스마를 갖춘, 그리고 그만한 기대를 받은 한국 정치인은 없었다. 하지만 모종의 낚음이 어영부영 배회한다 싶더니 결국 개혁의 전망 자체를 집어 삼키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김대중 사람들이 애당초 생물학적으로 27년 동안 늙어서가 아니다. 정치의 나이는 경륜이고 경륜과 결합할 때 미래전망은 가장 아름답다. 문화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화려한 시절 장충단 공원 유세로 돌아가고 싶어했고 그 순간 27년 만큼 미숙해진 것이다. 당선 10개월, 그리고 취임 8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의 극적인 발상은, 설령

커다란 돌파력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극적이었던 자신의 대통령 당선 과정=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 아닐까? 10개월은 수학적으로 물론 27년보다 짧다. 하지만 27년 동안의 야인경력이 아무리 중요하든 10개월 동안의 집권 경험보다 소중할 리는 없다. 만일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노무현의 재신임 발상은, 모험적이기에 앞서, 시대착오적인 가치 도취다.

클린턴 섹스스캔들 시절,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건 참 불쌍하고 비극적이며 부조리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미녀 인턴의 드레스에 남편 정액이 묻어났으니 아내의 침실은 싸늘했을 테고 가족의 식탁은 우울하고 식탁과 침실 사이 거실에서는 아내의 손톱이 남편의 얼굴을 핏퀴었던들 하나 이상할 게 없었을 텐데도 대통령이라는 게 뭘지 영부인이라는 게 뭘지 공식행사라는 게 뭘지 부부동반이라는 게 뭘지 둘 다 참으로 우아하고 기품있는 분위기를 미소로 연출해야 했던 것. 클린턴은 그 미소가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리고 여장부 힐러리는 얼마나 이가 갈렸을까. 뒤집어 보면 그 정도 뻘뻘해야 치를 수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직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에 비하면, 투기 때문에 용안을 핏퀴었다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 연산군 생모만 보더라도, 사극에 등장하는 왕의 신세는 훨씬 나은가?

SBS DRAMA다 KBS다 하는 드라마 전문 방송이 생기고 저마다 어제 그제 한 방송 재방하거나 옛날 방송 다시 돌리는 외중 사극이라는 게 대충 구조가 비슷한 데다(이를 테면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한 아뢰오가 왕에게, 왕비에게, 각 정파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차례로 전달되니 반복도 그런 반복이 없다) 유명한 인물 특히 궁중 요녀를 다룰 경우, 다시 이를 테면, <장희빈> 특집드라마 하면 옛날 드라마 <인현왕후전>을 편성, 이야기 전개의 김을 미리 빼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자행되는 거라, 이것을 보는 건지 저것을 보았던 건지 시간 개념도 흐트러지고 맞대응작이 없었던 <명성황후>는 이미연이 그녀의 매력 포인트인 섹슈얼리티=성깔을 유감없이 발휘, 방송사의 연장 방영 결정에 항의하

여 출연을 거부하자(이때 이미연은 문화운동가 서너 명의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타이틀롤 여배우를 아예 교체해 버렸으니(그리고보니, <인현왕후전>의 인현 왕후 어머니와 <장희빈>의 인현왕후 어머니는 같은 벨런트였다) 내게 사극은 저작권은 물론 시간=이야기도, 사람=배우도 뒤죽박죽인, 그러므로 역사와 드라마에 역행하는, 혼미의 재미 같은 게 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왕의 섹스의 처참함이다. 우선 왕의 섹스는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아니 늘 공론의 대상이다. 지밀상궁은 지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늘 왕의 침실을 엿듣고 왕이 파종의 의무를 다하는지 엿따한다. 모처럼 고독을 즐길라 치면 상궁들이 틀림없이 득달한다. 후궁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후궁들은 정치 세력 균형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 왕이 합방 순행을 게을리 할 경우 대신들은 벌집을 쑤신 듯 들고 일어나 섹스를 상소한다. 권신의 딸이 미색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아니 괜히 내 느낌으로는 권신의 딸일수록 박색일 것 같건만, 왕은 권신의 딸일수록 더 많은 성충을 뿌려줘야 하고, 그러자니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이 지독하게 지리한, 그러면서도 신음소리까지 날날이 목격되고 보고되고 공개토론되는 왕의 섹스는 블랙코미디에다 지옥의 형벌을 합한 것 같지 않은가. 아무리 미개한 시대란들, 왕이, 아니 한 인간이 그렇게 살았을 리 없지 않은가.

떡엿떡엿 봐서 그렇다고? 글썽...<명성왕후>가 시해되기 직전 불안에 떠는 지밀상궁의 대사가 무엇인줄 아는가? 오늘은 모처럼 합궁도 하셨나이다. ■

---

김정환 maydapoe@korea.com | 본지 편집위원, 시인, 한국문화학교 교장. 시집 『지울 수 없는 노래』, 『해방 서시』, 『김정환 시집(1980-1999)』, 소설 『세상속으로, 그후』의 다수가 있다.